

## 여자대학생의 진로탐색 활동을 위한 직업카드 개발\*

이 윤 우

진 석 언†

건국대학교

본 연구는 여자대학생의 진로탐색 활동을 위한 직업카드를 개발하고 본 직업카드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진로탐색 활동이 여자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을 높여주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직업카드는 16개 분야의 119개의 직업이 119장의 카드로 구성되었으며 직업카드의 앞면에는 직업의 종류, 일련번호, 직종분야, 직업명, 직업개요, 직업 내 여성비율 등이 기록되어 있고 직업카드 뒷면에는 근무환경 및 업무특징, 기본소양, 학력 및 자격, 직업 내 대졸자비율, 직장 내 진급체계, 관련 직업 등이 기록되어 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 본 연구의 전반부는 직업카드 제작을 위한 자문위원 구성, 직업선정 기준, 선정된 직업분석, 직업카드 수의 적정성 검토, 직업카드의 규격 및 디자인 결정, 전문가 검토 등의 직업카드 제작에 관한 내용과 카드 활용 방안을 다루었다. 연구의 후반부는 여자대학생 105명에게 직업카드를 적용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평가지를 실시하였고, 상담자 3명에게는 직업카드를 적용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여 보도록 한 후 직업카드에 대한 평가지를 실시하였다. 여자대학생들에 대한 평가지 분석 결과를 보면 직업카드를 활용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수준의 만족을 보여주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직업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직업카드의 다양한 정보는 직업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버리게 하여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진로를 확고히 하거나 취업준비에 대한 동기부여를 갖도록 하였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 직업카드분류활동을 지도한 상담자들의 의견을 보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직업카드가 참여자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활용하기에 편리한 진로탐색도구이며 다른 검사 없이 직업흥미에 대한 파악과 상담까지 진행할 수 있는 활동임을 보고하였다. 직업카드를 활용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여자대학생들에게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을 높여주는지를 확인한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여자대학생용 직업카드가 여자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효과적인 진로탐색도구임을 뒷받침해 주었다. 끝으로 본 연구에 대한 논의와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직업카드분류,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

\* 이 연구는 이윤우의 박사학위논문의 자료를 사용하여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 진석언, 건국대학교, E-mail : jins@konkuk.ac.kr

21세기 대한민국이 보여주고 있는 급격한 변화의 한 양상은 노동시장과 직업세계는 더 이상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시대가 지나갔고 양성평등의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 교육수준의 향상 등에 따라 우수한 여성 인력들의 사회 진출이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과 기업체와 사회의 여성 인력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게 된 것은 우선 자녀양육이나 가사문제를 여성의 책임으로만 돌리지 않고 부부공동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새로운 시각이 보편화됨으로써 여성이 자녀양육과 가사로부터 상대적인 자유를 얻게 되는 한편 여성에게도 직업세계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가정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를 요구받는 양면성으로 요약할 수 있는 젊은 세대 부부들 자신의 인식 변화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여성 취업의 규제요인으로 작용하였던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보육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등 여성들을 위한 취업지원 체계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최근의 여성취업 활성화의 배경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다 지식, 정보산업의 특성이 여성의 섬세함과 예민한 감성을 필요로 하게 되어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남성 근로자를 위한 보완이나 보충자원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주류를 형성하게 되는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다(박광엽, 1998).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 전문 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문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전문교육을 받았음에도 진로선택과 취업 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여전히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여자대학생들이

이러한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직업준비 활동을 할 때에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여성의 직업 적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여자대학생들이 노동시장 진입이나 진로선택 및 취업 시 최적의 지원을 제공하는 일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고등교육기관의 가장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진로선택 및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진로상담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적절한 도구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진로상담분야에서는 보다 실제적이고 체험적이면서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진로탐색 도구로서 직업카드의 개발을 시도해 왔다. 여러 가지 탐색활동이나 카드, 퀴즈게임과 같은 흥미로운 방법으로 진로나 직업을 탐색하고 개인적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준비과정을 단 기간에 더욱 즐겁게 계획할 수 있다는 점이 진로탐색 도구로서 직업카드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최명운, 2002; 박선영, 2003). 진로탐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카드의 개발은 국내외의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본 연구의 관심인 여대생들의 진로탐색 및 진로선택을 돕기 위해 개발된 해외 연구의 예로서 비성차별 직업카드(NSVCS) 분류활동(Jones, 1982; Lawler, 1979; Cooper, 1976)을 들 수 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직업카드가 개발되어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그 예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영자(2008), 조유미(2002), 최경애(2005) 등의 연구,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현정(2005), 김승신(2006) 등의 연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명운(2002) 윤영미(2005) 등의 연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방혜진(2003)의 연구,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김병숙(2006) 등의 연구, 성인 일반여성과

재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한 박선영(2003)의 연구 등이 있다. 본 연구와 가장 관련이 깊은 박선영(2003)의 직업카드도 그 대상에 여자대학생을 포함하고 있으나 고등교육을 받고 직업세계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여자대학생들에게 필요한 관련 정보의 제공이 충분히 못하고,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현 상황을 더 이상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자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상담 현장은 새로운 여자대학생용 직업카드의 개발에 대한 요구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사회진출과 여성 전문 인력 증가 추세에 있는 현시대에 발맞추어 여자대학생들이 진로선택시 가사와 양육을 병행하여야 하는 여성 특성과 아직도 직업세계에 잔재해 있는 고용 및 승진 기회나 임금차별 등과 같은 진로장벽들을 고려하여 진로나 직업을 선택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성에게 필요한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와 직업특성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담은 여자대학생용 직업카드를 개발하였다. 아울러 개발된 여자대학생용 직업카드를 활용한 진로탐색 활동이 여자대학생들의 진로선택시 우선적으로 확립되어야 할 자신의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진로정체감(Erikson, 1956; 박성미, 2005)이나 진로결정수준(이정애, 2008)을 높여주는 데에 효과적인 도구인지를 확인해 보았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 전문 인력이 요구되는 시대에 여자대학생의 진로정체감 형성과 높은 진로결정수준은 대학생 시기의 대학과정 교육에서 직업을 선택하고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여자대학생들에게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강이수, 2009). Holland와 Holland(1977)

는 진로정체감이 발달된 사람은 자신의 목표, 흥미, 성격, 재능 등에 명확한 확신을 갖는다고 하였고, 진로정체감이 낮을수록 진로결정을 못한다고 하였으며, 이광자(2005)도 성공적인 진로계획을 위해 진로에 대한 명확한 진로정체감이 요구된다고 하였으며, 낮은 자아정체감은 진로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히고 있다.

###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본 연구는 전문 여성인력의 진로탐색에 필요한 여자대학생용 직업카드를 개발하고, 해당 직업카드를 활용한 진로탐색 활동이 여자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을 향상시키는지 확인함으로써 개발된 직업카드의 효용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여자대학생들의 진로탐색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직업카드를 개발하였다.
2. 본 연구가 개발한 여자대학생용 직업카드의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 2-1 여자대학생용 직업카드의 진로정체감 제고 여부를 확인하였다.
  - 2-2 여자대학생 직업카드의 진로결정수준을 제고 여부를 확인하였다.

### 여성의 진로발달

Betz와 Fitzgerald(1987), Hackett(1981)에 의하면 여성의 진로발달은 이론가들에게 중요한 관심거리가 아니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짐에 따

라 1960년대 이후로 여성의 진로발달에 대해서 꾸준히 논의되어 오고 있다. 진로발달에서 남녀가 공통적인 특성을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여성의 진로과정은 남성의 경우보다 더 복잡하다고 여겨지는데 여성은 남성보다 기회가 한정되어 있고 자기능력을 맘껏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직업과 가족에 대한 책임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점 등이 여성의 진로발달의 독특한 측면이다(박미경, 2008). 또한 여성은 직업선택에 있어서도 여성 자체의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가정적 요인, 계층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에 의해서 남성보다 많은 영향을 받는다.

1980년대 상대적으로 성차별이 적다고 알려진 전문직에서도 여성들은 살아남기 위해 남성보다 더 일 중심적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했고, 여성들은 남성과 다른 여성의 조건을 내세우기보다는 남성과 대등하거나 오히려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남성들로 하여금 여성에 대한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고 점차적으로 동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였다(강이수, 2009).

여성들은 시대적인 성역할로 인한 두터운 진로장벽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남성과는 다른 여성들 자신의 진로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가운데 그들의 진로 영역을 꾸준히 넓혀 왔다. 그러므로 노동시장의 주요 구성원으로 등장한 여성인력의 욕구충족과 개인의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들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여성들의 직업세계 진출을 위한 사회의 체계적인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 직업카드 분류

직업카드 분류(occupational card sort)는 Tyler

(1961)가 개인의 독특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직업카드 분류법을 구상한 것을 Dolliver(1967, 1969)가 연구와 저서를 통해서 개인의 진로 탐색도구로 본격화시켰다. 또한 Dewey(1974)는 “비(非)성차별적” 카드 NSVCS(Non-Sexist Vocational Card Sort)분류법을 개발하여 여자대학생들이 성 고정관념을 완화하여 좀 더 폭넓은 진로 및 직업선택을 하도록 도왔다. 그 후 Cooper(1976), Dolliver(1981), Dolliver & Williams (1978), Jones(1979) 등 많은 연구자들이 사용하고 연구하여 왔다.

직업카드 분류는 참여자(내담자)가 자신의 직업적 흥미와 적성, 가치에 따라 직업들을 분류하고, 직업을 분류한 이유를 기록하고 범주화함으로써 진로에 대한 개인적 특성과 태도를 발견하여 자신에게 맞는 진로 및 직업을 찾고 선택하는 개별적, 질적 진로탐색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은 자신에 대한 이해는 물론 직업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가져오으로써 진로에 대한 태도를 정립하고 결정하여 진로 준비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기법이다(김병숙, 2006).

직업카드 분류기법은 상담자들이 진로상담 시 개입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하며, 이러한 개입전략은 개인의 진로 개발과 직업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간의 차이점을 고려하는 동시에 각 내담자의 개인적 진로 정체성 문제를 고려하게끔 되어 있다. 또한 진로 상담 실무자들에게는 실제적인 직업에 대한 이해와 현황을 파악하게 하며 초보 상담자들도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한다.

선행연구 분석에서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 개발된 직업카드분류와 이들 직업카드의 특징, 직업카드분류와 관련된 연구, 직업

카드분류의 장점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외국에서는 Tyler(1961)와 Dolliver(1967, 1969), Dewey(1974), Cooper(1976)는 Dewey의 카드 분류법을 체계화하여 타당도를 검증했고, Cooper(1976)의 방법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여대생이 직업 정보를 많이 읽도록 하였고, 비전통적인 직업(여성이 접근하기 어려운 직업)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널리 알려진 스트롱 캠벨 흥미도 검사법(Strong-Campbell Interest Inventory SCII)보다 더욱 효과적이라고 밝혀졌다. 또한 Lawler(1979)도 NSVCS(비성차별카드)가 널리 사용되는 자기탐색검사(Self Directed Search SDS)보다 여대생들에게 폭넓은 진로 대안을 제시하여 좀 덜 관습적인 직업을 선택하도록 하는데 효과가 있었음을 밝혔다.

Slaney와 Dickson(1985)는 직업카드 분류(Vocational Card Sort VCS)는 진로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제작된 비디오테이프만큼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여성들이 진로에 대하여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는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고 정리하게 하면서, 이전에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몇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제공받았음을 밝혔다.

이상의 외국 연구자들은 직업카드 분류활동이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검사도구(SDS, SCII)와 비교 연구하여 기존 도구와 비슷한 효과를 나타냄과 동시에 기존 도구에서 나타내지 못한 새로운 사실들을 나타냈음을 밝혔다.

국내의 직업카드 개발과 관련된 연구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직업카드 개발로 조유미(2002) 신선기(2005), 등이 있으며, 중학생 대상으로는 이현정(2005), 고등학생대상으로는 최명운(2002), 윤영미(2005), 청소년 및 일반성인용으로 김병숙(2006) 등이 있다. 또한 성인 일반여성과 재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박선영

(2003) 등이 있다.

위의 연구자들은 각 학교 급 별로 개발된 직업카드가 학교 진로상담 현장에서 짧은 시간 내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직업흥미탐색에 효과적이며 직업의 특징을 이해하고 직업선택의 기준을 알게 되어 진로탐색을 도울 수 있는 질적 진로사정도구임을 증명하였다.

직업카드 분류활동은 다른 진로탐색검사를 활용할 때보다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수동적으로 검사결과를 통보받는 기존의 표준화된 심리검사와는 다르게 직업카드분류는 내담자가 직접 카드 분류 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찾고 그 이유를 기록해 봄으로써 능동적이면서도 주체적으로 진로탐색 활동을 할 수 있다. 둘째, Goldman(1983)에 의하면 내담자가 카드분류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담자의 자기개념, 직업세계관, 진로성숙의 정도, 의사결정유형, 직업세계의 지식 정도, 인지과정의 복잡성 등에 대한 진로상담에서 중요한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다(최명운, 2002 재인용). 셋째, 시험지 유형인 지필검사가 아닌 카드화함으로써 편안하고 흥미롭게 자신을 탐색할 수 있는 진로탐색 도구이다. 넷째, 개인상담 형식이나 소그룹 집단, 대그룹 집단에 도 사용가능하며 상담사나 교사가 진로상담에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다(김병숙, 2006).

####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

직업선택을 위한 청년의 주요 도전과제 중의 하나는 진로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이다(Erikson, 1956). 진로정체감은 Erikson, Marcia의 자아정체감 이론을 직업(Occupation)영역에 적용한 개념으로 자아정체감을 직업목표, 대인관계, 종교, 정치적인 신념 등에 대한 일관된

개인적 가치체계라고 볼 때 진로정체감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일관된 개인의 가치체계(Erikson, 1963, 1968)라고 볼 수 있다(장지선, 2004). 사용에 있어서 같은 의미인 직업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을 연구자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진로정체감으로 통일하여 사용할 것이다.

박성미(2006)는 대학생에게 주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인 진로정체감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대학 1학년은 대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시기로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단계이며, 대학 2학년은 자신의 진로 가능성에 대한 탐색단계이다. 그리고 대학 3학년은 자신의 진로목표달성을 위해 준비하는 단계이며, 대학 4학년은 자신의 진로목표를 현실에서 실행하는 단계임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진로정체감은 대학생 시기에 필수적으로 이루어야 할 발달과업임을 알 수 있다.

진로 준비기에 있는 대학생에게는 졸업 후 전문직업인으로서 독립적인 생활과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고 자아실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계획하여 실천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야 할 과제가 있다. 그러나 과연 대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할 수 있는 높은 진로결정수준의 상태에 있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많은 연구자(김지영

외, 2001)들이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

진로결정수준은 대학생들이 향후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의 정도로서 진로미결정과 확고한 진로결정을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어느 한 지점을 지칭하는 것(장기명, 2003)으로 자신의 전공 선택 및 직업선택과 관련된 진로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에 대한 확신과 결정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이정애, 2008).

따라서 진로결정수준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전공과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확신하는 정도임을 지칭하는 것으로 대학생들의 진로계획과 선택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과업임을 알 수 있다.

### 여자대학생용 직업카드의 개발 과정

여자대학생용 직업카드 개발을 위한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 여자대학생용 직업카드 개발을 위한 자문위원 선정

여자대학생용 직업카드 개발을 위하여 직업 선정기준, 카드기입내용, 카드의 크기, 카드의 개수, 카드 활용방법 등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직업카드의 내용 타당성을 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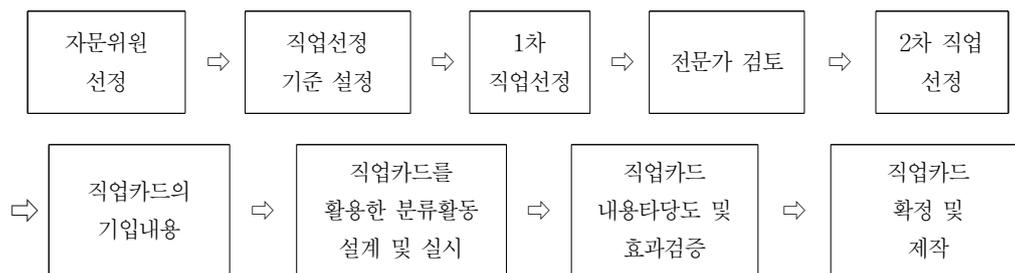


그림 1. 여자대학생용 직업카드 개발 절차

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 및 직업분야 관련 전문기관과 대학교에 근무하는 진로 상담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국고용정보원 진로정보센터 연구원 2명,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연구팀 연구원 2명, 여성정책연구원 직업연구팀 연구원 1명, 진로상담 분야 대학교수 4명 등을 자문위원으로 선정하였다.

### 직업 선정을 위한 기준 설정

여자대학생용 직업카드의 개발 목적이 여자대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현실적으로 직업 및 진로를 선택할 수 있고, 직업세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여대생에게 필요한 다양하면서도 상세한 정보를 담은 여자대학생용 진로탐색 도구의 개발이므로 직업카드의 직업은 우리나라 직업세계를 대표할 만한 직업과 여자대학생에게 소개될 만한 직업이어야 하며, 여자대학생들이 흥미 있어 하는 직업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은 직업선정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첫째, 각 직업분류별로 대표적인 직업을 선정하되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나 수준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정한다. 둘째, 국제화와 관련된 국내외 유망 직업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셋째,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사회에서 고용형태와 직업세계변화를 감안하여 직업선정을 한다. 넷째, 현재 직업 분포율을 고려하여 직업선정을 하되 여성의 분포율이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직업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다섯째, 남성·여성 지배직업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여섯째, 여성 유망직종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여덟째, 새롭게 떠오르되 전망 있는 신종직업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직업카드에 포함할 직업의 선정

먼저 1차로 선정한 여자대학생용 직업카드의 직업 종류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행한 “한국직업전망서(2009)”의 16개 분야 186개 직업이 수록된 우리나라 대표성 있는 직업들을 기초로 하고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직업 129개, 한국고용정보원과 여성정책연구원(2008)에서 공동으로 4년제 대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학생 희망직업 23개, 여대생 희망직업 21개를 추가적인 자료로 하여 종합적인 직업목록을 만든 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직업선정 기준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2)의 여성이 도전할만한 신 직업 25선을 직업선정 기준자료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발행한 “2007 미래직업의 세계”의 26개 분야 170개의 직업들 중 우리나라 대표성 있는 직업들로서 향후 10년 뒤까지 감소·유지 및 증가를 예측할 수 있는 직업 중에서 증가를 예측할 수 있는 직업들과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직업 135개를 선정하였고 또한 2007 미래직업의 세계에서 여성 차지율 20%이상과 전문대졸 이상 학력을 요구하고, 여성이 새롭게 진입하는 직업으로 판단되는 직업들 중에서 66개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여성유망직종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한국직업전망서(2009)에서 선정한 129개 직업과 2007 미래직업의 세계에서 선정한 135개 직업, 여성유망 직업으로 선정한 66개 직업, 여성이 도전할만한 직업 25선, 대학생 희망직업 23, 여대생 희망직업 21 등에서 2회 이상 공통되는 직업으로 총 123개 직업을 1차로 선정하였다.

1차에서 선정한 직업의 종류와 내용타당성

표 1. 한국직업전망서의 분류표에 따른 여자대학생용 직업카드의 직업분류

분 야	직 업	개수
1. 경영·기획관련직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전문가, 광고 및 홍보전문가, 행사기획자, 시장 및 여론조사전문가, 전문비서, 무역사무원, 경영컨설턴트	11
2. 금융 및 보험 관련직	투자 및 신용분석가, 증권 및 외환딜러, 손해사정사, 금융 및 보험관련 사무원, 금융자산운용가, 보험계리인	6
3. 교육 및 연구 관련직	대학교수, 자연과학연구원, 생명과학연구원, 중등학교교사, 초등학교교사, 특수학교교사, 유치원교사	7
4. 법률 및 공공 서비스 관련직	판사 및 검사,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경찰관, 소방관, 교도관, 외교관, 일반공무원 및 행정고위공무원, 법률관련사무원	10
5. 의료 및 보건 관련직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수의사, 약사 및 한약사, 간호사, 치과 위생사, 물리 및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안경사, 영양사, 병원코디네이터	15
6. 사회복지 관련직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직업상담사 및 취업알선원, 사회단체 활동가, 응급구조사, 직업군인	6
7. 문화예술 관련직	작가, 번역가, 통역사, 큐레이터 및 문화재보존원, 사서, 기자, 미술가, 만화가 및 만화영화작가, 국악 및 전통예능인, 음악가, 대중가수, 무용가 및 안무가	12
8. 디자인 및 방송 관련직	제품디자이너, 의상디자이너, 실내장식디자이너, 시각디자이너, 웹 및 멀티미디어디자이너, 감독 및 연출자, 배우 및 모델, 아나운서 및 리포터, 촬영기사, 연예인 및 스포츠매니저, 음향 및 녹음기사, 컬러리스트	12
9. 운송 및 여행 관련직	항공기조종사, 선장·항해사 및 도선사, 항공교통관제사, 여행 상품개발원, 여행서비스관련종사자	5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상품중개인 및 경매사, 부동산컨설턴트 및 중개인	2
11. 개인서비스 관련직	경호원 및 청원경찰, 피부미용사 및 체형관리사, 메이크업아티스트 및 분장사, 항공기객실승무원, 주방장 및 조리사, 바텐더, 카지노딜러	7
12. 건설 관련직	건축가(건축사) 및 건축공학기술자, 토목공학기술자, 조경기술자, 도시계획 및 교통설계전문가, 지적 및 측량기술자	5
13. 기계 및 재료 관련직	기계공학기술자, 공예원, 귀금속 및 보석세공원	3
14. 화학·섬유 및 환경 관련직	화학공학기술자, 재료공학기술자, 섬유공학기술자, 환경공학기술자, GIS전문가(지리정보시스템), 에너지공학기술자,	6
15. 전기·전자 및정보통신 관련직	전기공학기술자, 전자공학기술자, 컴퓨터시스템설계 및 분석가, 컴퓨터보안전문가, 웹 전문가, 데이터베이스개발자, 통신공학기술자, 소프트웨어개발전문가, 전자상거래전문가, 프로그래머	10
총 개수		117

을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2명,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 2명에게 직업카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직업선정 기준에 대한 유의사항, 공신력 있는 자료 활용, 여자대학생 및 성인여성의 진로발달 단계를 기준으로 한 필요한 정보 수록 등에 대하여 검토와 조언을 받아 수정·보완하였다. 진로상담분야 대학교수 4명에게는 직업구성 등에 대하여 검토와 조언을 받아 정보통신 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직업 중 유사한 직업은 묶고 중복되는 것은 삭제하였다. 직업카드에 포함되어 있는 직업 외의 선호직업을 자유롭게 기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백지카드 2장을 포함하여 2차로 119개의 직업을 선정하였다.

여자대학생용 직업카드 분류활동 후 최종적으로 선정된 여성용직업카드 직업은 117개이며 우리나라 대표성 있는 직업들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체계를 진로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정하여 제시한 한국직업전망서 16개 분야 중에서 직업이 선정되지 않은 “식품가공 및 농림어업 관련직”은 삭제하고 15개 분야로 분석하여 여자대학생용 직업카드의 직업을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

#### 직업카드 개수의 적절성 검토

선행연구(Tyler et al. 1961; 조유미 외, 2002)를 보면 직업카드의 개수는 각 개발하는 목적과 대상, 용도에 따라 다양하였다. 본 연구자도 직업카드 직업 선정기준과 여대생의 진로 및 직업선택을 돕기 위한 개발목적과 활용시간, 장소, 편의성에 따라 선정한 직업카드 직업이 117개이었다. 또한 직업카드에 소개되어 있지 않은 직업 중 관심이 가는 직업을 포함시켜 활용하기 위하여 빈 카드 2개를 합하여

총 119개의 카드를 제작하였다.

#### 직업카드에 기입할 정보 결정

여자대학생용 직업카드의 기입내용은 여자대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거나 직업을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장애요인 등을 고려하고, 또한 선행연구(신선기 2005; 윤영미 2005; 김병숙 2006)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행한 한국직업전망서(2009),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발행한 미래직업의 세계(2007, 2009) 등 직업별 구성 체계에서 여자대학생의 진로 및 직업선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으로 판단되는 구성항목을 선정하였다.

직업카드 앞면에는 직업카드의 종류, 일련번호, 직종분야 등을 기입함과 동시에 직업명을 부각시키면서 직업개요와 직업 내 여성비율 등이 적혀있다. 직업카드 뒷면에는 여성의 상황적 신체적 특수성을 짐작할 수 있는 근무환경 및 업무특징과 이 직업에 입직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 적성과 관계되는 학력 및 자격이 적혀있고, 그 직업의 적응력과 경쟁력을 예측할 수 있는 직업 내 대졸비율과 직업의 안정성을 고려할 수 있는 직업전망, 자신의 능력개발이나 발전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직장 내 진급체계가 적혀있다. 또한 연계직업을 알 수 있는 관련 직업과 최 하단에는 대학생희망직업, 여대생희망직업, 여성유망직업, 신종직업 등(직업연구전문기관 여성정책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직업능력개발원들이 여성에게 매력도가 높은 직업으로 선정한 것)을 표시하여 진로탐색 활동 시 고려해보도록 제시하였다.

**직업카드의 규격 및 디자인 결정**

직업카드의 규격은 카드 사용의 목적과 대상, 카드에 기입할 정보의 양, 분류활동의 편리함, 분류활동 시 장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카드에 여대생의 진로탐색과 직업선택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담기 위해서는 선행연구의 흥미탐색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카드보다는 좀 더 규격이 큰 가로 7cm X세로 11cm 규격그림 2와 그림 3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직업카드 디자인의 앞면에 있는 지구본 아이콘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할 현대의 여성에게 미래를 향한 청사진을 펼쳐게 해주는 이미지이다. 다양한 직업카드를 통해 한국의 핵심인력으로 도약하여 세계로 향해 향하도록 도와주겠다는 의미이다. 직업카드 디자인은 그림 2와 그림 3과 같다.

**진로전문가의 피드백**

직업카드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 직업능력개발원과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여성정책 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카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유의 사항으로는 ① 직업카드는 기존의 진로검사(Holland, Strong)와는 다른 질적인 검사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직업흥미와 적성을 파악하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능력 보다는 기본소양이나 흥미, 속성을 기록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② 직업종류로는 요즈음 여성이 진출할 수 없는 직업이 없으므로 대표성 있는 직업들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신종직업이나 유망직업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용단위가 매우 낮고 흥미 위주의 직업들이어서 별 의미가 없다. ④ 직업 내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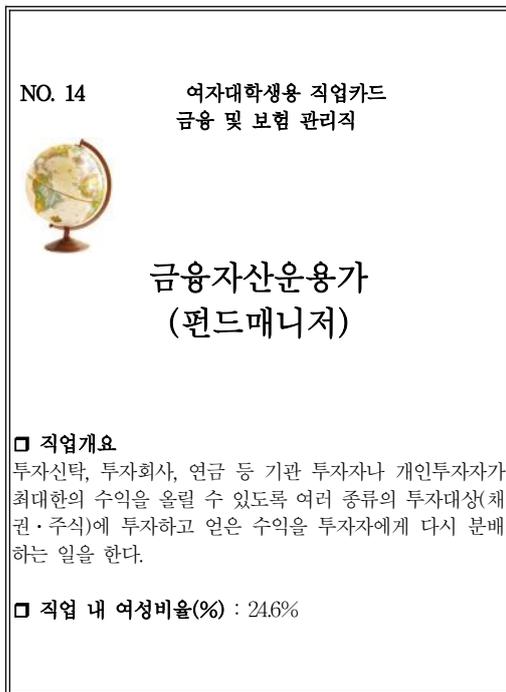


그림 2. 직업카드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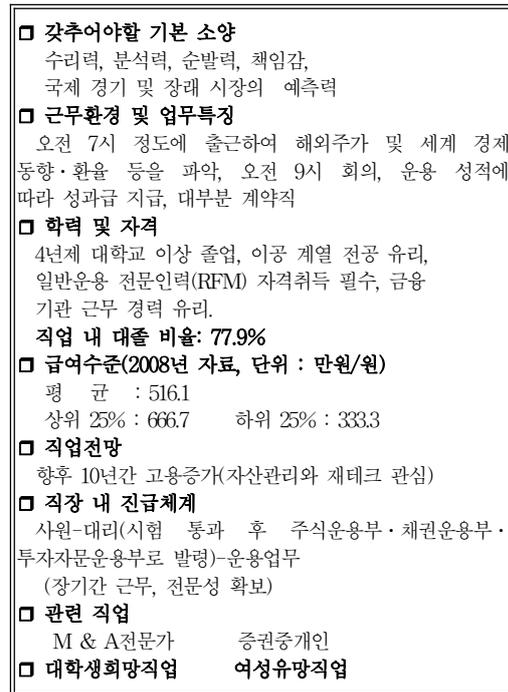


그림 3. 직업카드 뒷면

력분포(여대생 카드이므로 전문대 이상)를 제시하여 취업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⑤ 직업카드에서 다 해결할 수 없으므로 직업사이트를 제시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진로탐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직업을 분류할 때 공개된 자료, 통일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류가 혼용되면 통일된 정보를 줄 수 없다.

셋째, 여자대학생용 직업카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① 여성용 카드로서 여성 진입 비율이 적은 직업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② 여

대생은 현실적으로 취업을 해야 하므로 입직 경로를 정확히 제시하고, 여성의 독특한 능력 발휘나 진입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여성 친화적인 직업으로 인식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학계열 비중이 많고 사무직이 적다.

넷째 직업카드 디자인에 대해서는 여대생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액세서리처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위와 같은 자문내용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직업카드를 수정·보완하였다.

업무수행능력을 삭제하고 갖추어야 할 기본

표 2. 직업카드분류활동의 단계별 진행과정

단계별	단계별 과정	소요시간
1단계 시작	직업카드 활동 시 직업카드 활용방법, 절차 등에 대한 설명	10분
2단계 카드분류	직업카드를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정보를 읽으면서 “좋아하는 직업”과 “모르는 직업”, “싫어하는 직업”으로 분류한다. 직업을 분류해봄으로써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직업을 범주화하여 직업선택을 현실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30분
3단계 모르는 직업 재분류	모르는 직업을 재분류함으로써 진로탐색의 신중을 기한다.	10분
4단계 직업을 분류 한 이유 찾기	직업을 분류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 기록함으로써 자신의 흥미와 적성 등을 탐색한다. 토론하기: 다른 참여자들과의 나눔을 통해 자신을 좀 더 깊이 있게 탐색 할 수 있다.	30분 20분
5단계 나의 직업선호 경향 탐색 및 최종직업 결정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단계적(30개→10개→1개)으로 선택하여 최종직업을 선택해 본다.	20분
6단계 진로계획 세우기	최종직업을 가지고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진로계획을 세워본다. 토론하기 : 나눔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진로계획이 실현 가능한지 또는 합리적인지 검토해 볼 수 있다.	40분 20분

소양으로 학력 및 자격 부분에 여자대학생을 위한 도구이므로 직업 내 대졸 비율을 추가하였고 여성친화직업인 사무직 비중이 적다는 조언을 받아들여 행정, 법률, 회계 분야 중 누락된 사무 직업을 추가하였다.

다음으로 진로탐색도구임을 검증받기 위하여 진로상담분야 대학교수 4명에게 받은 자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업의 종류가 정보통신 분야에 편중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하드웨어 직업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자문내용을 받아들여 정보통신분야의 13개 직업 중에서 하드웨어 분야의 유사한 직업들은 삭제하고 소프트웨어 분야의 응용소프트웨어개발전문가를 추가하여 총 7개의 직업(컴퓨터시스템설계 및 분석가, 컴퓨터보안전문가, 웹 전문가, 데이터베이스개발자, 통신공학전문가, 소프트웨어개발전문가, 전자상거래전문가)으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여성 유망직업 분류 기준을 분명히 밝힐 것과 통일된 분류체계를 사용하는 것, 여성 특성의 진로탐색 및 진로선택 즉 가정과 직장을 연결시켜 진로선택을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에 관한 사항들을 수정·보완하였다.

#### 직업카드를 활용한 분류활동 개발

##### 직업카드 분류활동의 단계별 과정

직업카드 분류활동은 시작단계, 카드분류단계, “모르는 직업” 재분류단계, 직업분류이유 찾기 단계, 나의직업선택경향 탐색 및 최종직업결정단계로 나누었고 6단계의 진로계획 세우기 단계는 황매향(2008)의 “목표실행을 위한 전략세우기”를 응용하여 나눔으로써 총 6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별 과정은 대상과 지도자(상담자), 집단규모(개인별,

소집단, 대집단)에 따라 유효적절하게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직업카드분류활동의 단계별 진행과정은 표 2와 같다.

### 여자대학생용 직업카드의 현장적용 및 효과성 검증

#### 현장적용 연구의 방법

##### 연구대상

##### 여자대학생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S대학교 교양학부 강좌를 듣는 여학생을 대상으로 2009년 10월 23일부터 2009년 11월 2일까지 일정을 계획하여 2시간 30분 동안 단회기로 하여 총 14회에 걸쳐 105명을 개인내적 변화를 보기 위하여 통제집단 없이 실시하였다. 참가자는 1학년 42명, 2학년 18명, 3학년 28명, 4학년 17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진로정체감 검사와 진로결정수준 검사를 카드분류활동 전에 단체로 실시하고 분류활동 후에는 평가지와 진로정체감 검사와 진로결정수준 검사를 실시하였다.

##### 상담자

본 연구에서 상담자는 총 3명으로 서울시 소재 2개 대학교와 경기도에 소재한 1개 대학교에서 진로상담을 맡고 있는 진로상담자들로 기존에 개발된 직업카드분류활동을 직접 진행한 경험이 있는 상담자들이다. 이들에게는 각각 2명씩 총 6명의 학생이 배정되었고 각각 2시간 30분 동안 2009년 11월 2일부터 11월 13일 기간 동안 분류활동을 실시하였다.

평가도구

참가자 평가 설문지

참가자 평가 설문지는 Zener와 Schnelle(1972)이 SDS(Self Directed Search SDS)의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하고 Cooper(1976)가 일반적인 진로탐색 활동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 SOF(Student Opinion Form)를 참조하여 박선영(2003)이 재구성한 것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평가 설문지 1은 박선영(2003)이 “여성용 직업카드분류의 개발” 연구에서 직업카드의 원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었는지 묻는 내용으로 구성된 주관식용 3문항에 직업카드에 기록된 정보와 진로탐색 활동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3문항을 더 추가하였다. 이는 직업카드 개수와 직업명, 직업카드분류활동 등에 관한 총 6문항으로 진로상담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연구자가 직접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평가질문지 2는 박선영(2003)이 최명운(2002)

의 “직업카드를 이용한 고등학생의 직업흥미 탐색”에서 재구성하여 사용한 평가척도를 진로상담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비슷한 문항은 묶고 여자대학생들의 진로탐색 활동에 불필요한 문항은 삭제하였다. 또한 진로선택에 필요한 내적요인(양진희, 2008)들과 진로탐색 활동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로 본 연구자가 재구성하여 17문항 중에서 8문항은 수정 보완하였고, 12번부터 17번 문항은 삭제하고 다른 1문항을 추가 하였다. 박선영(2003)은 평가 척도 17문항에 대한 Cronbach's  $\alpha$ 를 .86으로 보고하였다. 평가문항은 표 3과 표 4와 같다.

진로정체감 검사(Vocational Identity Scale: VIS)

진로정체감은 Holland, Daiger 및 Power(1980)가 개발한 진로정체감 척도(Vocational Identity Scale: VIS)를 김봉환(1997)이 번안하고 윤영관(2007)이 신뢰도 검증한 것을 본 연구에서 사

표 3. 본 연구에서 수정·보완한 평가척도 1과 박선영의 주관식 평가척도

박선영의 평가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평가척도
문 항	문 항
2. 직업카드의 개수와 직업명, 직업설명에 대해	1. 직업카드의 숫자
2-1. 직업카드의 숫자	
2-2. 직업카드의 직업명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2. 직업카드의 직업종류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2-3. 직업카드뒷면의 직업 설명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3. 직업카드에 기록된 직업정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3. 카드분류활동에 대한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4. 직업카드분류활동이 진로 및 직업탐색 활동으로 도움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5. 직업카드분류활동에 대해 귀하의 의견 및 느낌을 말씀해주세요.

표 4. 본 연구에서 수정·보완한 평가척도 2와 박선영의 Likert 평가척도

박선영의 평가척도		본 연구의 평가척도	
문 항		문 항	
1. 나의 직업흥미를 탐색하는데 도움이 된다.		1. 나에게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2. 내가 좋아하는 직업군의 특징을 아는데 도움이 된다.		2. 나의 직업흥미를 탐색하는데 도움이 된다.	
3. 내가 싫어하는 직업군의 특징을 아는데 도움이 된다.	흥미	3. 내가 좋아하는 직업군의 특징을 아는데 도움이 된다.	
4. 나의 직업가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4. 이 활동결과 직업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 보고 싶어졌다.	
5. 나의 직업선택의 기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5. 내가 싫어하는 직업군의 특징을 아는데 도움이 된다.	
6. 나의 직업선택의 결정 정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가치	6. 나의 직업가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7. 직업세계에 대해 보다 잘 알게 되었다.		7. 나의 직업선택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8. 직업카드분류활동은 다른 흥미검사에 비해 흥미 있다.		8. 직업세계에 대해 보다 잘 알게 되었다.	
9. 직업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얻었다.		9. 직업카드분류활동은 지필검사나 온라인 검사에 비해 흥미 있다.	
10. 이 활동결과 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직업에 대해 고려해보게 되었다.	직업 세계	10. 직업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얻었다.	
11. 이 활동결과 직업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보고 싶어졌다.		11. 이 활동결과 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직업에 대해 고려해보게 되었다.	
12. 나에게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결정 수준	12. 나의 직업선택의 기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13. 이 활동을 주위사람들에게도 권하고 싶다.			
14. 직업카드분류활동과정이 흥미로웠다.			
15. 현실적으로 임직 가능한(고용 가능성이 있는) 직업의 종류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기여도	13. 이 활동은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에 유익하다.	
16. 고려중인 직업에 대해 어디서 정보를 구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			
17. 전반적으로 활동에 대해 만족한다.			

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보고식 총 18문항으로 ‘아니다’ 혹은 ‘그렇다’ 대신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Likert식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하위척도는 자신의 이

해, 능력자신감, 직업정보의 이해로 구성되어 있다. 채점은 역으로 실시하여서 총점이 높을 수록 자신의 목표, 흥미, 성격, 재능 등에 관한 명확한 그림(Clear picture) 즉 진로정체감(sense of career identity)이 높음을 나타낸다.

Holland, Daiger 및 Power(1980)는 해당 검사의 Cronbach's  $\alpha$  계수를 .87로 보고하였고, 김봉환(1997)은 Cronbach's  $\alpha$ 의 계수는 .89, 반분신뢰도 .86, 거트만 반분 계수 .85 등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윤영란(2007)은 하위영역별(자신의 이해 .83, 능력 자신감 .87, 직업정보의 이해 .84)로 보고하였다.

### 진로결정수준 검사

진로결정수준은 Osipow, Carney, Winer, Yanico와 Koschir 등(1980)이 개발한 진로결정수준 검사를 고향자(1992)가 한국어로 번안한 것을 박미경(2008)이 신뢰도를 보고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의 진로결정에 방해가 되는 장애요소를 확인하고 진로선택과 관련하여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결정 척도를 측정하는 4점 척도의 자기 보고식 18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이 척도는 4점 Likert 척도이며, 문항 1-2와 문항 3-18을 구분하여 실시하는데 하위요인으로 문항 1-2는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진로확신수준을 의미하며 문항 3-18은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가 더 미결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진로결정수준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문항 3-18을 역으로 채점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총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영문으로 된 원검사에 대한 Osipow, Carney, Winer 및 Koschier(1980)의 연구에서 보고한 신뢰도는 .80이었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9이었다. 한국어로 번역된 검사에 대해 박미경(2008)은 Cronbach's  $\alpha$  계수를 .85로 보고하였다.

###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사용된 구체적인 실증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차이 검증인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직업카드분류활동 후 진로선택 및 진로준비기에 있는 여자대학생들의 진로발달단계에서 획득해야할 진로정체감이나 진로결정수준에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여자대학생용 직업카드의 현장 적용결과 분석

#### 직업카드 분류활동에 참여한 여자대학생들의 피드백

직업카드 분류활동에 참여한 여자대학생들의 평가지를 분석해본 결과 내용타당도는 다음과 같이 검증되었다.

첫째, 본 여자대학생용 직업카드는 “다양한 직업의 종류와 그 직업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한 유용한 도구”로 평가되었다. 반면 “너무 간략하게 설명되어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사전적인 정보보다는 현장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관심직업과 신종직업이 없어서 아쉬웠다.” 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둘째, 직업카드 직업의 종류에 대하여는 “직업의 종류가 다양하여 몰랐던 직업들을 알게 되었다”라는 반응이 많았다. 반면 “다양한 듯도 하지만 전문직종이 대부분이었고, 더 다양한 직업이 제시되어 있어서 폭 넓은 진로탐색을 하고 싶다”라는 의견과 “분야

별로 세분화하거나 비슷한 직업은 묶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이 있었다. 셋째, 직업카드에 기록된 직업정보에 대해서는 “직업카드에 기록된 다양한 정보는 너무 광범위해서 검색조차 시도하지 못했던 정보들을 한 눈에 볼 수 있어서 직업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꿈과 헛된 욕망보다는 재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직업들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의견도 많았다. 반면 “너무 간단하게 요약한 설명이 이해하기 어려웠고 구체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없었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넷째, 진로탐색 활동에 대해서는 “진로의 방향을 확고히 할 수 있었고, 흥미와 적성을 알게 되었으며 117개의 직업 중에서 3개의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진로에 대한 생각이 구체화 되었고, 취업준비에 대해서 다시금 동기부여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반응도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부족하여 카드에 적힌 정보를 다 읽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각 단계마다 활동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다섯째, 직업카드분류활동의 개선점으로 “좀 더 이른 시기에 도움이 된다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과 “수작업은 번거롭다. 온라인상에서 하면 더욱 효과적일 거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각 연령별로 직업카드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 **직업카드분류활동을 지도한 상담자들의 피드백**

직업카드 분류활동에 참여한 상담자들의 평가를 분석해본 결과 내용타당도는 다음과 같이 검증되었다.

첫째, “직업카드의 다양한 직업의 종류와 설

명 및 구체적인 직업정보들은 내담자들에게 직업의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찾는데 도움이 되었음”과 “매뉴얼을 수정하여 분류활동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과 효과적인 활동을 위하여 Sample 제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참여자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이며, 기존의 상담자 주도적인 프로그램 진행에서 내담자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는 도구임”을 밝혔다. 셋째, “직업흥미를 한 번에 파악하여 해석 및 상담까지 가능한 활용이 쉬운 도구”임을 제시하였다. 넷째, “ 단어 선택이 어렵고 쓰기를 싫어하는 참여자들에게는 몇 가지의 주제어나 단어를 알려주어 상담자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 **참가자들의 객관식 평가지 분석**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본 직업카드 “여자대학생들의 진로탐색도구로 유용한 도구”임을 나타냈다. 이는 직업흥미, 직업가치, 직업세계, 결정수준, 기여도를 알아보는 5점 Likert 척도 객관식 문항 분석에서 전체 평균점수가 4.30으로 높은 긍정응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여자대학생용 직업카드가 여자대학생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과 맞는 직업을 찾는 것, 직업의 가치와 직업세계를 이해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진로탐색도구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진로탐색 활동이 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직업에 대해 고려해보게 되었다.” 라는 응답에서는 3.78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참가자용 만족도 평가지 결과 5점 척도 환산표 n=105

문항		평균
흥미	문항 1. 나에게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4.48
	문항 2. 나의 직업흥미를 탐색하는데 도움이 된다.	4.50
	문항 3. 내가 좋아하는 직업군의 특징을 아는데 도움이 된다.	4.51
	문항 4. 이 활동결과 직업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보고 싶어졌다.	4.31
가치	문항 5. 내가 싫어하는 직업군의 특징을 아는데 도움이 된다.	4.35
	문항 6. 나의 직업가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4.39
	문항 7. 나의 직업선택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4.29
직업 세계	문항 8. 직업세계에 대해 보다 잘 알게 되었다.	4.34
	문항 9. 직업카드분류활동은 지필검사나 온라인 검사에 비해 흥미 있다.	4.02
	문항 10. 직업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얻었다.	4.15
	문항 11. 이 활동결과 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직업에 대해 고려해보게 되었다.	3.78
결정 수준	문항 12. 나의 직업선택의 기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4.31
기여도	문항 13. 이 활동은 진로탐색에 유익하다.	4.48
전 체		4.30

직업카드분류활동의 진로정체감 및 진로결정 수준에 대한 효과탐색

본 직업카드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진로탐색 활동이 여자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을 높여주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표 6) 다음과 같은 효과성이 검증되었다.

직업카드를 적용한 진로탐색 활동 후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진로정체감 전체점수 사전 45.30에서 사후 54.15와 하위요인별로는 자신의 이해 사전 18.57에서 사후 23.57, 능력자신

표 6. 진로탐색 활동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n=105

검사	사전검사		사후검사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신의 이해	18.57	4.72	23.57	3.57	-8.644	.000
능력 자신감	5.23	1.19	5.68	1.08	-2.860	.000
직업정보의 이해	21.46	4.23	24.90	4.32	-5.777	.000
진로정체감(전체)	45.30	8.76	54.15	7.20	-8.002	.000

표 7. 진로탐색 활동의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n=105

검사	사전검사		사후검사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진로 확신	4.79	1.50	6.02	1.34	-6.254	.000
진로결정	43.87	9.60	50.10	9.60	-4.690	.000
진로결정수준 (전체)	48.49	10.36	56.11	10.04	-5.419	.000

감 사전 5.23에서 사후 5.68, 직업정보의 이해 사전 21.46에서 사후 24.90으로 사전보다 사후에 미미한 증가를 나타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전체 점수  $t=-8.002, p<.001$ ).

직업카드를 적용한 진로탐색 활동 후 t검증을 실시한 결과(표 7) 진로결정수준 전체점수 사전 48.9에서 사후 56.11과 하위요인별로 진로확신 사전 4.79에서 6.02, 진로결정 사전 43.83에서 사후 50.10으로 미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전체점수  $t = -5.419, p<. 01$ ).

### 논의 및 제언

앞에서 제시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갖는 시사점을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교육기관에 소속된 예비전문 인력으로서 여자대학생들의 진로탐색 활동에 적용하기 위한 여자대학생들을 위한 특화된 정보나 형식들을 갖춘 직업카드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여자대학생용 직업카드는 기존의 직업카드(초등학생용 직업카드 조유미, 2002; 중학생용 직업카드 이현정, 2005;

고등학생용 직업카드 최명운, 2002; 운영미, 2005; 여성용직업카드 박선영, 2005; 청소년 및 일반 성인용 직업카드 김병숙, 2006)와 비교하여 볼 때 이러한 연구들은 연구의 대상과 목적이 본 연구와 다르다. 이를테면 진로선택을 돕기 위한 도구 이전에 흥미탐색 도구로 개발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담고 있는 여성의 진로선택을 위한 직업 내 여성 비율, 대졸자 비율, 근무환경, 승진체계 등의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서 여자대학생들의 진로탐색도구로서는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여자대학생용 직업카드는 진로탐색 활동에 참여한 여자대학생들과 진로탐색 활동을 지도한 상담자들의 피드백에 따르면 본 직업카드가 여자대학생들의 진로탐색 활동을 위한 도구로서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객관식 평가지 분석(직업흥미, 직업가치, 직업세계, 결정수준, 기여도)에서 전체평균 점수가 4.30으로 높은 긍정응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여자대학생용 직업카드가 여자대학생들이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진로탐색 도구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주관식평가지 분석에서 직업의 종류, 직업

카드에 기록된 정보 등은 여자대학생들이 직업세계를 이해하여 직업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어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알 수 있다. 위 연구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보면 고등학생용 직업카드를 개발하여 “직업정보를 자세히 알게 되었으며 미래에 갖게 될 직업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다”,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다” 등의 반응을 보고한 최명운 (2002), 윤영미(2005)의 연구와 유사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직업카드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직업과 그 직업에 대한 정보들이 참여자들에게는 직업세계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하여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탐색하고 선택하는데에 유용한 도구임을 알 수 있다. 반면 “다양한 듯도 하지만 전문직종이 대부분이었고, 신종 직업이 없어 아쉬웠다”는 의견과 “분야별로 세분화하는 것과 좀 더 자세한 현장적인 직업 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는 고학력 대중화에 따른 대졸자들이 전문직보다는 일반직과 새롭게 떠오르는 신종직업에 대한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진로탐색에 있어서 현장감 있는 정보와 세부적인 직업을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직업카드에서 완벽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이므로 매뉴얼을 수정·보완하여 활동 시 신종직업·이색직업이 수록된 소책자 활용이나 컴퓨터 직업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진로탐색 활동에 대해서는 “진로의 방향을 확고히 할 수 있었고, 흥미와 적성을 알게 되었으며 117개의 직업 중에서 3개의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진로에 대한 생각이 구체화되었고, 취업준비에 대해서 다시금 동기부여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반응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각 분류활동 단계에서 내담자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찾는 것은 물론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발견함으로써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진로에 대해서 확고히 하고, 진로계획을 세워 준비하는데에 유용한 진로탐색 도구임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진로탐색 활동의 개선점으로 “시간이 부족하여 카드에 적힌 정보를 다 읽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좀 더 이른 시기에 직업카드분류 활동을 경험한다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적절한 진로교육의 부재와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지 않은 수능점수나 주변 주요인물의 권유, 사회적 인정 등을 고려하여 전공과 진로를 선택한 대학생들의 갈등적인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단계에 따른 적절한 시간배정과 분류 활동시간을 2시간 30분에서 3시간으로 늘린다면 충분한 진로탐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상담자들의 응답을 보면 여자대학생용 직업카드는 기존의 상담자 주도적인 프로그램 진행에서 내담자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는 도구이며 다른 검사(Holland, Strong)없이도 직업 흥미를 한 번에 파악하여 해석 및 상담까지 가능한 활용이 쉬운 도구임을 보여준다.

셋째, 진로탐색 활동이 자신에 대한 이해와 능력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와 탐색을 통해 여자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의 제고에 어느 정도 효과적인 활동임을 보여주었다. 여자대학생들이 자신의 선호직업에 대한 이유와 선택 기준을 찾고 서로 토론해보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흥미와 적성, 가치를 탐색하였고, 생애설계를 해 봄으로서 자신의 진로정체감을 형성하는 데에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진로탐색 활동이 여자대학생의 진로

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여자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활동 진행과정 중 117개 직업 중 직업을 분류하고 단계별로 직업을 선택하여 진로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진로결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직업카드분류활동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내담자 변인을 구분하여 실시하지 않았다. 후속연구에서는 내담자변인(진로결정자와 미 결정자)과 상담자 변인(성격유형, 전문성)을 구성하여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개인내적 변화를 보기 위하여 통제집단 없이 효과성 탐색을 시도함으로써 엄격한 의미의 실험설계를 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통제집단을 설계하여 효과성을 검증한다면 좀 더 명확한 효과를 보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항상 변화하는 직업세계를 반영한 직업카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정보의 업데이트가 가능한 온라인 기반의 직업카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강영자 (2008). 직업카드를 활용한 진로상담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효영 (2005). 여대생의 진로장벽과 진로포부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전주대학교상

담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이수 (2009). 일·가족·젠더(한국의 산업화와 일-가족 딜레마). 서울: 한울  
강재태·배중훈·강대구 (2007). 진로지도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김병숙 (2006). 직업카드분류 생애진로 주제 분석 매뉴얼. 한국직업상담협회  
김승신 (2006). 직업카드를 활용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지영 (2001). 진로의사결정 상담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 능력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2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봉환·최명운 (2003).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용 직업카드 활용 매뉴얼. 학지사  
박광엽 (1998). 2000년대의 직업전망과 취업전략.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대학생연구 19.  
박미경 (2008). 여대생의 사회적지지·진로장벽·자아정체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구조모형분석.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선영 (2003). 여성용 직업카드분류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성미 (2006). 대학생들을 위한 직업준비교육. 경기도: 문혜원.  
박혜영 (2005). 대학생활적응도와 진로정체감·진로결정수준·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방혜진 (2003). 직업흥미검사도구 실시방법이 직종선정 명확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2009). 여성과 직업. 서울: 시그마프레스.
- 신선기 (2005). 고등학생용 직업카드 개발과 이를 활용한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영란 (2007). 대학생의 효과적인 진로지도 방안 연구: 진로교과목 수업과 진로 집단 상담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대학 박사학위논문.
- 윤영미 (2005). 고등학생용 직업카드 개발(홀랜드 유형별 기초하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광자 (2005). 부모 지지와 고등학생 진로발달과의 관계연구: 일반계, 산업정보계, 실업계의 비교. 성균관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윤우 (2010). 여자대학생의 진로탐색 활동을 위한 직업카드 개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정애 (2008). 진로가치명료화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 이현정 (2005). 중학생용 직업카드 개발과 이를 활용한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만익 (2006). 대학생의 진로교과목 수강여부에 따른 진로결정수준 · 진로정체감 · 진로준비행동 및 대학생활적응도의 차이
- 장지선 (2004). 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도록 및 애착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유미 (2002). 직업카드를 활용한 초등학생 진로지도 프로그램개발과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애 (2005). 직업카드를 활용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명운. (2002). 직업카드를 이용한 고등학생의 직업흥미 탐색.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명운 (2005). 학과 및 직업카드를 활용한 단기 진로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진로교육연구 학술지.
- 장지선 (2004). 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도록 및 애착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기명 (2003). 대학생을 위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및 과정분석. 원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매향 (2008). 진로탐색과 생애설계(꿈을 찾아가는 포트폴리오). 학지사
- 한국고용정보원 (2007, 2009). 한국직업전망서.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7, 2009). 미래직업세계 2009.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Betz, N. E, & Fitzgerald, L. F. (1987). *The career psychological of women* Sandiego, CA: Academic Press.
- Cooper, J. F. (1976). Comparative impact of the SCII and the vocational Card Sort on career salience and career exploration of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3, 348-352.
- Dewey, C. R. (1974). Exploring interests: A non-sexist method.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52, 311-315
- Dolliver, R. H. (1967). An adaptation of the Tyler Vocational Card Sort. *Personnel and Guidance*

- Journal*, 45, 916-920
- Dolliver, R. H. (1969). Strong Vocational Interest Blank versus expressed vocational interests: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72, 95-107.
- Dolliver, R. H., & Will, J. A. (1977). Ten-year follow-up of the Tyler Vocational Card Sort and the Strong Vocational Interest Blank.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 48-54.
- Dolliver, R. H. (1981). Test review: A review of five vocational card sorts.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Guidance*, 14, 168-174.
- Dolliver, R. H., & Williams, S. K. (1978) The Vocational Card Sort: A tool for vocational exploration. *The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26, 237-243.
- Goldman, L. (1983). The vocational card sort technique: A different view.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Guidance*, 16, 107-109.
- Hackett, G., & Betz, N. E.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s*, 19, 323-339.
- Jones, L. K. & Dvaul, R. M. (1979). Evaluation of a self-guided career exploration system: The Occu-Sort. *School Counselor*, 26, 334-341.
- Jones, L. K. (1980). Issues in developing an occupational card sort.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Guidance*, 12, 206-213.
- Jones, L. K. (1981). *Occ-U-Sort professional manual*. Monterey, CA: Publishers Test Service of CTB/McGraw-Hill.
- Jones, L. K. (1982). A reaction to Dolliver's review of the Occ-U-Sort.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Guidance*, 15, 169.
- Lawler, A. C. (1979). Career exploration with women using the non-sexist vocational card sort and the self-directed search.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Guidance*, 12, 87-97.
- Slaney, R. B., & Dickson, R. D. (1985). Relation of career indecision to career exploration with reentry women: A treatment and follow-up stud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 355-362.
- Slaney, R. B. (1978). Expressed and inventoried vocational interests: A comparison of instrum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5, 520-529.
- Slaney, R. B., & Mackinnon-Slaney, E. (1990). The use of vocational card sorts in career counseling. In C. E. Walkins and V. L. Campbell(Eds.), *Testing in counseling practice* (pp. 317-371). Hillsdale, NJ: Erlbaum.
- Tyler, L. E. (1961). Research explorations in the realm of choi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8, 195-201.
- Tyler, L. E. (1964). Work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H. Borow (Ed.), *Man in a world at work*. Boston: Houghton-Mifflin.
- 1 차원고집수 : 2011. 1. 24.  
심사통과집수 : 2011. 6. 7.  
최종원고집수 : 2011. 6. 24.

## **Development of Vocational Cards for Female College Students' Career Exploration Activity**

**Yun-Woo Lee**

**Suk-Un Jin**

Konkuk University

This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vocational cards for female university students an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newly developed cards in terms of the enhancement of their career identity and career decision making. The first half of this study described the processes of developing a new set of vocational cards, such as organizing counseling committee, establishing the standards for vocation selection, analysing selected vocations, review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number of cards, determining design, and exemplifying how to utilize the cards in the field. The latter half of this study tried to explore the effectiveness of the newly developed vocational cards by applying the cards to 105 female university students and conducting questionnaire to the subjects. This study developed 119 occupational cards with the specific purpose of assisting female college students who are preparing for a career by helping them to find their vocational interest and aptitude, and search and decide their career or occupation by themselves. And, the analyses on the questionnaires showed that female college students were overall satisfied with vocational card sorting activity as well as the developed cards themselves. Feedbacks from the counselors who guided the vocational card sorting activities were positive. Last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suggestions for the further research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 Vocational Card Sort, Career identity, Career decision making